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여전히 불안한 회복세, 2016년보다 낮은 2.5%에 그칠 전망



목 차

■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여전히 불안한 회복세, 2016년보다 낮은 2.5%에 그칠 전망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대외 여건 전망	9
3. 2017년 수정 경제 전망	11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8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외 6명

Executive Summary

□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여전히 불안한 회복세, 2016년보다 낮은 2.5%에 그칠 전망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최근 한국 경기 흐름은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과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핵심 지표인 민간소비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낮다. 성장이 건설부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경기와 설비투자의 확장세가 다소 주춤거린다.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불안정한 상승세이다.

■ 2017년 수정 경제 전망의 배경

(정치 리스크 완화) 연말 연초 발생했던 일련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선을 거치며 완화되었다. 이에 올해 한국 경기 흐름이 작년 연말 당시에 예상했던 만큼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추경 집행)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 놓았지만 일자리 중심의 11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정부지출은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여전히 상존해 있는 대내외 리스크) 그러나 세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교역 리스크,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금융시장 불안, 국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 지속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

(경제성장률) 정치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및 추경 집행 등의 요인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6년 12월 전망)의 2.3%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존해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2016년의 2.8%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민간소비)**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전망된다.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건설투자)**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5.7%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건축 및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SOC 부문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토목 부문의 부진, 금리 상승 가능성 및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인한 민간 건축 경기 악화 우려 등으로 건설투자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세계 경제 여

건 개선 등에 따르는 설비 확충 동기가 존재하고 2016년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7년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예상된다. 다만, 새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설비 확충 심리가 상쇄되면서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5.2%에 그칠 전망이다. **(대외거래)** 2017년 수출증가율은 9.0%, 수입증가율은 14.6%로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편 무역수지 흑자는 약 74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약 720억 달러 내외로 흑자 규모는 2016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물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전망된다. 소비 심리 반등 및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하반기에 수요측 압력이 다소 증가하는 점도 연중 물가 상승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2017년 실업률은 3.8%로 전망된다. 최근 건설투자 호조에 따라 건설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하반기 건설경기 부진,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일자리 추경'이 집행될 계획이나 정책 시행과 효과의 시차가 클 것으로 보여 올해 고용시장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시사점과 대응 방안

(시사점)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낮은 2.5%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 경기의 반등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세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만큼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대응 방안)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새 정부는 경제 생태계의 구심점 구축, 미래 비전 제시,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경제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구 소득 증대 노력과 함께 소비 진작책의 정확한 타게팅을 통해 내수불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및 건설 경기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출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함께 국제 통상 대응 역량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생활물가 안정 및 가계소득 확대를 바탕으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을 확보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리스크의 확산에 대비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표(2017.6)>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8	3.2	2.5	2.8	2.6	2.4	2.5
	민간소비 (%)	2.2	2.9	2.1	2.5	1.7	2.1	1.9
	건설투자 (%)	6.6	9.9	11.4	10.7	7.4	4.0	5.7
	설비투자 (%)	4.7	△3.7	△0.9	△2.3	8.0	2.5	5.2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059	517	470	987	380	340	720
	무역수지 (억 달러)	903	481	412	892	432	313	745
	수출증가율 (%)	△8.0	△10.2	△1.6	△5.9	14.5	3.8	9.0
	수입증가율 (%)	△16.9	△13.1	△0.5	△6.9	20.6	9.1	14.6
소비자물가 상승률 (%)	0.7	0.9	1.1	1.0	2.0	2.2	2.1	
실업률 (%)	3.6	4.0	3.4	3.7	4.1	3.5	3.8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취약한 경제성장 구조) 2017년 1분기에 들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는 상승 기조를 유지

-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부문인 민간소비가 아닌 건설투자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모습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6년 4분기 0.5%에서 '17년 1분기에 1.1%로 상승하며 '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1%대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도 2016년 4분기 2.4%에서 2017년 1분기에 2.9%로 상승
- 그러나 전기대비 성장률 1.1%의 전부가 건설투자에 기인(기여도 1.1%p) 하였으며, 순수출은 마이너스의 기여, 민간소비 기여도는 0.2%p에 불과

- 전반적인 경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동행 및 선행 지수 모두 상승 추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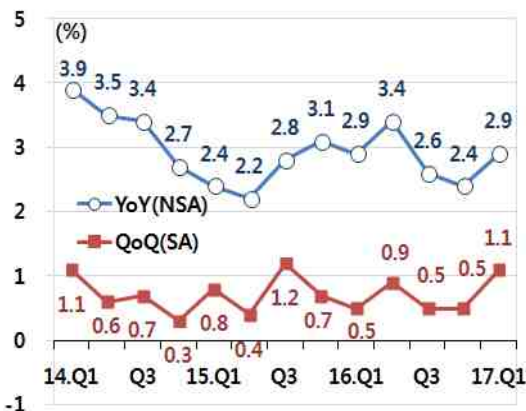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월을 저점으로 6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시현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7년 1월 100.7p, 2월 100.7p, 3월 101.0p, 4월 101.0p

- 한편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1년여 동안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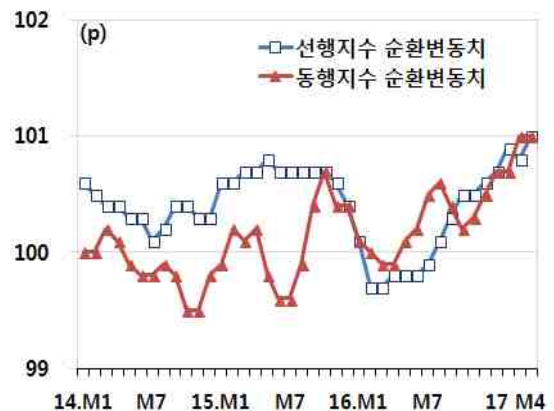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7년 1월 100.7p, 2월 100.9p, 3월 100.8p, 4월 101.0p

<분기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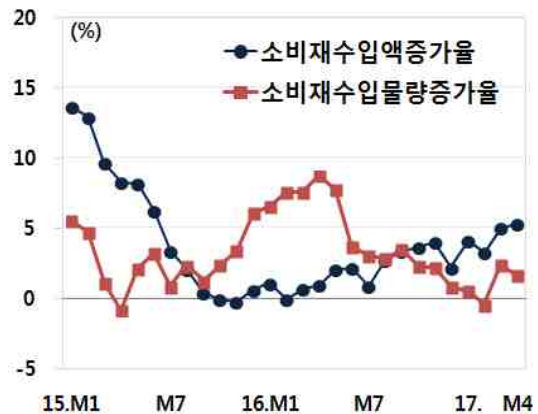
- (소비 회복의 지속성 확인 필요) '16년 하반기의 소비절벽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향후 내구재 소비회복의 지속 여부, 연휴효과가 기대되는 5월 소비지표에 대한 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전반적 소비 방향성 판단이 가능
- 최근에 들어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로 간주할 수 있는 내구재 소비와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4월중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이 향후 소비 회복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7.1월 4.1%, 2월 0.5%, 3월 1.4%, 4월 2.8%
 -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7.1월 1.7%, 2월 7.4%, 3월 1.1%, 4월 5.8%
 - 또한 최근에 들어 소비재수입액은 물론 소비재수입물량도 증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긍정적
- 다만 내구재 소비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통신기기 수요 확대, 미세먼지 이슈 및 기온 상승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회복 여부를 더 지켜볼 필요가 존재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소비재 수입액 및 수입물량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주 : 6개월 이동평균.

○ (설비투자 회복세 약화)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분기에 들어 그 회복 강도가 약화

- 추세적으로는 해외수요(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 회복이 지속

·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증가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 확대 추세가 지속중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7.1월 10.3%, 2월 19.5%, 3월 23.3%, 4월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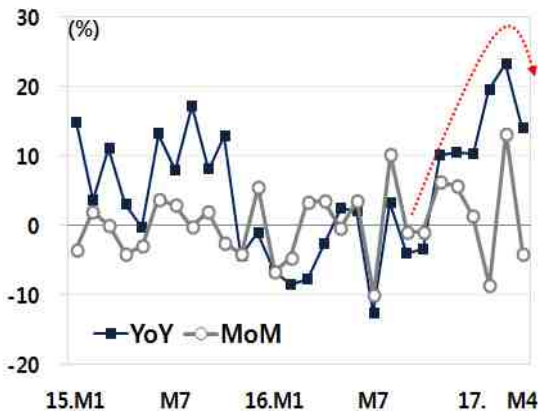
- 설비투자 선행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설비투자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16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중이며 특히 1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20%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

·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16년 11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폭이 빠르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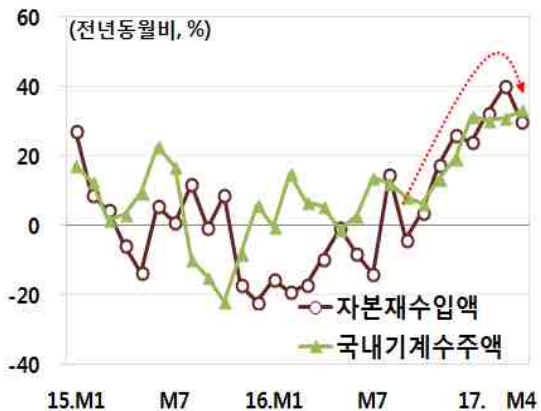
- 다만 2분기 첫달인 4월중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증가세가 낮아졌고(3월 23.3% → 4월 14.1%), 전기대비 기준으로 감소세(3월 13.3% → 4월 △4.0%)로 급락한 것은 불안요인으로 평가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주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 (민간 부문 중심의 건설투자 호조) 상당 기간 민간 부문이 전체 건설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공공 부문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

-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 들어 공공 부문도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

· 4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4.9%로 3월(24.8%)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 건설기성 증가율(YoY): '17.1월 19.7%, 2월 30.1%, 3월 24.8%, 4월 24.9%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 수주가 4월중 34.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건설 경기를 견인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도 7.7% 증가율을 기록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7.2월 8.8%, 3월 6.1%, 4월 7.7%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7.2월 42.2%, 3월 38.5%, 4월 34.3%

-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 수주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공공 부문은 방향성이 불확실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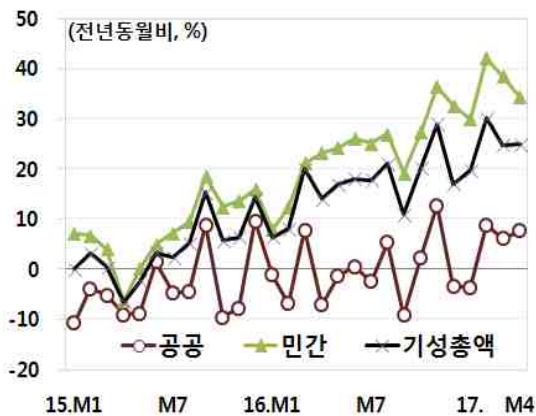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 증가율(선행지표)은 4월중 29.7%로 3월의 $\Delta 22.3\%$ 에서 증가세로 전환

※ 건설수주 증가율(YoY): '17.2월 24.3%, 3월 $\Delta 22.3\%$, 4월 29.7%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7.2월 30.9%, 3월 $\Delta 28.7\%$, 4월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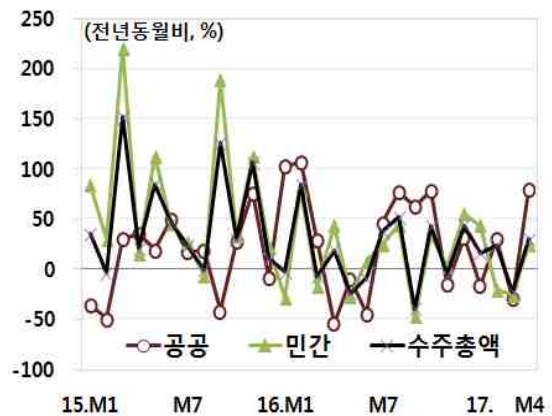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7.2월 $\Delta 20.6\%$, 3월 $\Delta 25.5\%$, 4월 24.4%

<건설기성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건설수주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 (수출 경기 회복 강도 약화 우려) 2016년 11월 이후 수출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단가 회복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특히 5월에 들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약화되는 모습

-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단가 회복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수요의 회복세로 '16년 11월 이후 수출단가 상승 기조 지속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중

※ 수출액 증가율: '17.1월 11.1%, 2월 20.2%, 3월 13.2%, 4월 24.1%, 5월 13.4%

· 수출 물량도 올해중 4월을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 단가 요인을 압도할 정도의 강한 수요 회복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 수출물량 증가율: '17.1월 5.1%, 2월 2.0%, 3월 5.8%, 4월 △8.2%, 5월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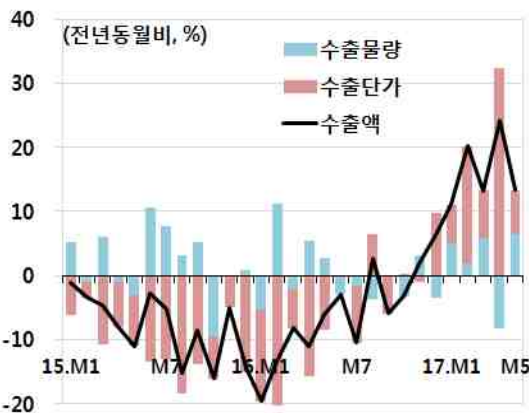
- 5월에 들어 지역별로 보면 ASEAN과 EU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더 중요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시현

·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 중국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17년 2월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낮아지는 모습

※ 대중 수출액 증가율: '17.1월 13.5%, 2월 28.7%, 3월 11.9%, 4월 10.2%, 5월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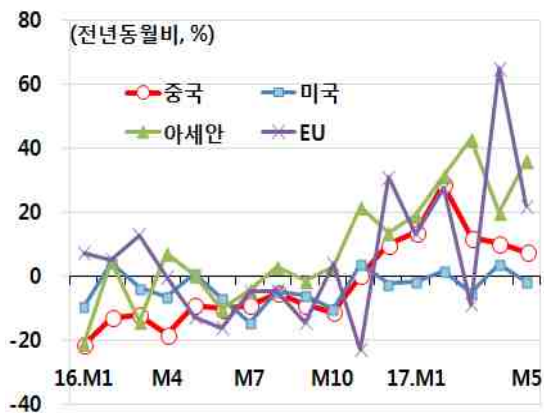
· 한편 5월중 대 아세안 수출증가율은 36.0%, 대 EU 수출증가율도 21.9%로 호조를 보였으나, 대 미국 수출증가율은 △1.9%로 침체되는 모습

<월별 수출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창출력 강화 또는 착시) 신규취업자가 40만명대로 높아지고 있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많아 일시적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외형상 고용상황 지표인 실업률조차도 안정화되지 못하는 추세가 지속중1)
 · 2017년 4월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의 3.9%보다 높아졌으며, 4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 수준(60.3%)보다 상승

- 여전히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40만 명대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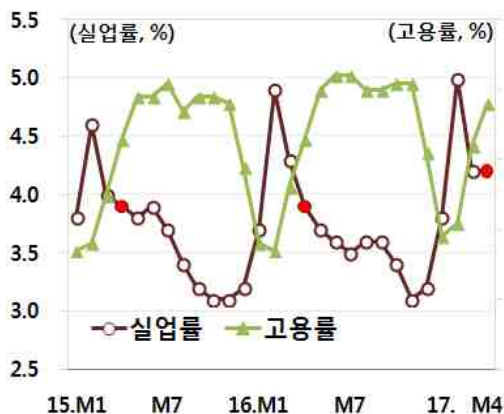
·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17년 1월에 20만 명대에서 3월과 4월 모두 40만 명대로 급증

·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2016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 취업자 증감(YoY): '17.1월 24.3만 명, 2월 37.1만 명, 3월 46.6만 명, 4월 42.4만 명

※ 제조업 취업자 증감: '17.1월 △16.0만 명, 2월 △9.2만 명, 3월 △8.3만 명, 4월 △6.2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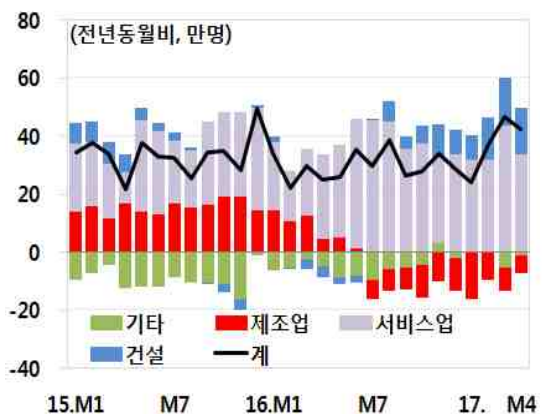
· 한편 4월 기준 여타 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서비스업 33.7만 명 증가, 건설업은 16.1만명 증가

<실업률 및 고용률>



자료 : 통계청.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1) 실업률과 고용률은 계절성이 강하여 최근 추세보다는 전년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미약)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 상승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16년 11월 이후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중

· 4월 수입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9.3%로 급증

※ 수입물가 상승률(YoY): '17.1월 13.3%, 2월 9.2%, 3월 6.8%, 4월 9.3%

·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4.0%로 증가세를 지속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17.1월 3.9%, 2월 4.3%, 3월 4.3%, 4월 4.0%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에 들어 2%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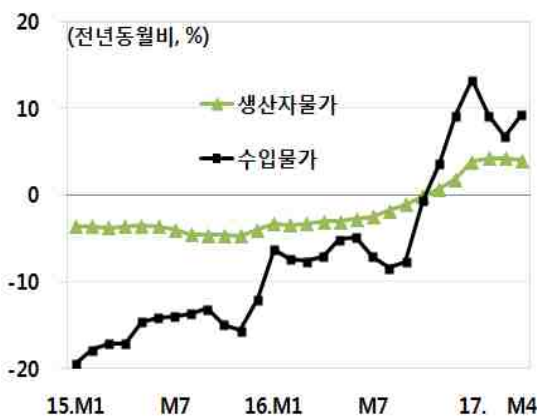
· 5월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0% 수준을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7.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

· 5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²⁾) 상승률은 1.4%에 그치고 있어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높지 않아 내수 회복 강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

※ 근원물가상승률(YoY): '17.1월 1.5%, 2월 1.5%, 3월 1.4%, 4월 1.3%, 5월 1.4%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근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2) 소비자물가 품목중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2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그동안의 비경제적인 요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당 부분 기술적 반등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 가계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모두에서 심리지수가 개선되는 모습

· 가계의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7년 1월 50p대에서 5월 80p대로 크게 높아지는 모습

※ 현재경기판단CSI: '17.1월 51p, 2월 55p, 3월 59p, 4월 69p, 5월 82p

· 또한 향후경기전망CSI도 2016년 11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5월 중 기준치인 100p를 상회

※ 향후경기전망CSI: '17.1월 67p, 2월 70p, 3월 77p, 4월 89p, 5월 111p

- 2016년 말의 기업의 심리적 냉각 현상이 2017년에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조짐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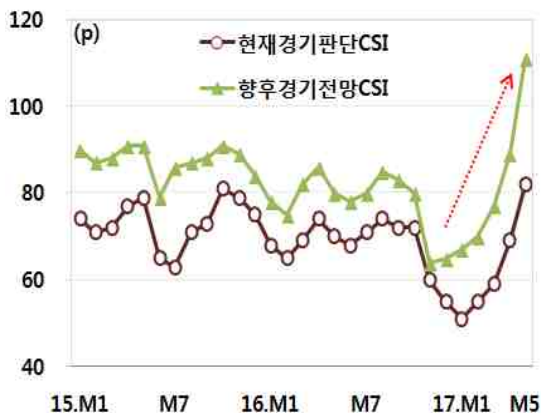
· 전경련 BSI(전망)는 1월과 2월에 80p대에서 6월에는 99.1p로 개선

※ 전경련 BSI: '17.1월 89.9p, 2월 87.7p, 3월 92.1p, 4월 93.3p, 5월 91.7p, 6월 99.1p

· 한은 BSI(업황전망)도 2016년 침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2017년 1월을 저점으로 상승하여 6월 82p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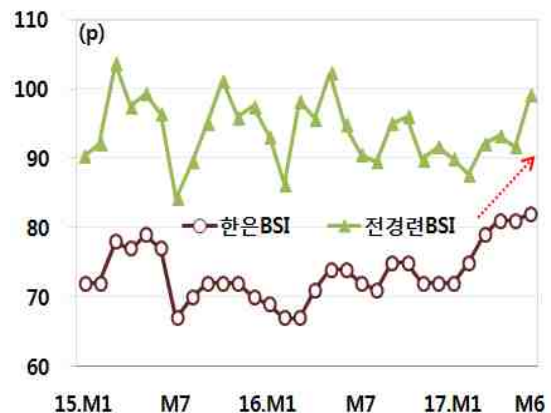
※ 한은 BSI: '17.1월 72p, 2월 75p, 3월 79p, 4월 81p, 5월 81p, 6월 82p

<소비자심리지수(CCSI)>



자료 : 한국은행.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 :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2. 대외 여건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

- 글로벌 제조업 호황 및 선진국의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의 영향과 과잉생산 축소에 따른 인한 이익 구조개선 등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수요 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
- 세계 경제의 회복기조에 따라 세계 교역 증가세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유로존 정치 리스크 등 일부 하방리스크 해소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여하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 등의 글로벌 하방 리스크는 상존

- 프랑스 대선, 네덜란드 총선 등의 정치 이벤트에서 극우파 정당의 득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유로존 통합 약화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었으나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우려 등의 유로존 하방리스크는 상존
- 미국·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는 글로벌 교역 회복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 향후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및 자산축소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예상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금리차 축소로 인한 외국인자금 유출 등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IMF의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15년	2016년	2017년(E)		
			2017.4월 전망	2017.1월 전망	2016.10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3.4	3.1	3.5	3.4	3.4
선진국	2.1	1.7	2.0	1.9	1.8
미 국	2.6	1.6	2.3	2.3	2.2
유로지역	2.0	1.7	1.7	1.6	1.5
일 본	1.2	1.0	1.2	0.8	0.6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4.2	4.1	4.5	4.5	4.6
중 국	6.9	6.7	6.6	6.5	6.2
인 도	7.9	6.8	7.2	7.2	7.6
브라질	△3.8	△3.6	0.2	0.2	0.5
러시아	△2.8	△0.2	1.4	1.1	1.1
세계 교역증가율	2.7	2.2	3.8	3.8	3.8

자료 : IMF.

○ (국제 유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하면서 강보합세 전망

- 주요 산유국 감산합의 기한 연장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나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대 등의 유가 하락 요인을 고려하면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
 - 2017년 5월 결정된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 기한 연장(2018년 3월까지)은 국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대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반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WTI 유가 추이 및 전망>

(달러/배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WTI	48.8	39.8	47.4	43.5	50.7	50.8	50.8

자료 : 한국석유공사, EIA(2017.6).

주1) 2016년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2) 2017년부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치.

○ (주요국 환율)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달러화 가치는 완만한 상승 전망

-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경기 회복에 따라 엔화 및 위안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유로화는 유로존 정치 리스크 완화 및 경기 호조세에 따라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세가 예상됨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통화 환율 전망>

구분	유로/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1월~6월	3Q(E)	4Q(E)	1월~6월	3Q(E)	4Q(E)	1월~6월	3Q(E)	4Q(E)
평균	0.927	0.902	0.897	112.5	113.2	114.4	6.881	6.918	6.985
최고	-	0.943	0.971	-	120.0	125.0	-	7.000	7.100
최저	-	0.862	0.833	-	103.0	100.0	-	6.750	6.830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 주1) 1월~6월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일별 환율의 평균치.
- 2) 전망치는 2017년 5월 15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전망치를 발표한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전망치로 유로/달러, 엔/달러는 각각 12개, 위안/달러는 8개의 투자은행의 전망치 적용.

3. 2017년 수정 경제 전망

○ 수정 경제 전망의 배경

- (정치 리스크 완화) 2016년 연말 및 2017년 연초 발생했던 일련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선을 거치며 완화되면서 올해 한국 경기 흐름이 작년 연말 전망 당시에 예상했던 만큼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짐
 - 작년 연말 수정 전망 당시 우려했던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은 대선을 거치며 해소됨
 - 기술적인 반등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비경제적인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급랭했던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일단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

- (추경 집행) 올해 약 11조 원의 추경 집행이 예상되면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 기대
 - 향후 추경안(약 11조 원 규모)의 국회 통과를 가정³⁾
 - 현대경제연구원은 약 11조 원의 추경 집행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약 0.3%p 내외로 추정⁴⁾
 - 다만, 이번 추경은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는 SOC 투자 부문보다는 일자리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3%p 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여전히 상존해 있는 대내외 리스크) 그러나 세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교역 리스크,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금융시장 불안, 국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 지속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르는 글로벌 교역 리스크는 개선되고 있는 국내 수출 경기를 재차 악화시킬 우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 취약한 신흥국 중심의 외국인 자금 이탈 및 경기 둔화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 역시 우리나라의 對신흥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존
 -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국내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가중 및 이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위축 우려

○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

- (경제성장률) 정치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및 추경 집행 등의 요인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5%로 상향 조정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높은 2.5%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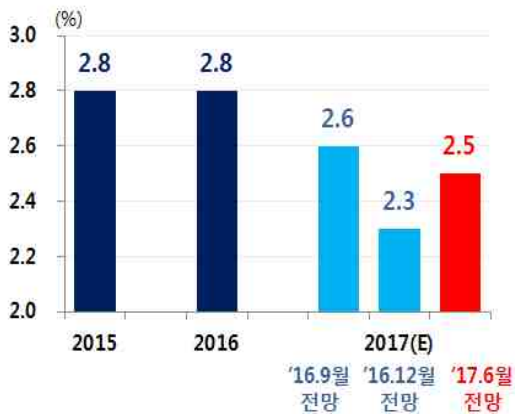
3) 정부는 6월 5일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이 주요 내용인 1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

4)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6월,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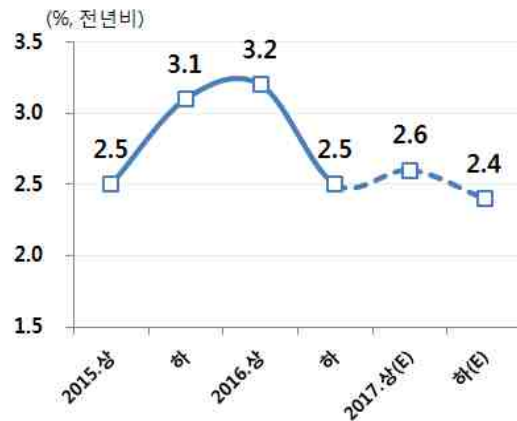
- 그러나 여전히 상존해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2016년의 2.8%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2017.6)>

(연간 경제성장률)



(반기 경제성장률)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가계소득 여건 개선세 미흡,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전망

-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 등으로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인구고령화 진전 및 주거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 역시 지속되고 있음
- 다만,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르는 소비심리 개선, 일자리 추경 추진 등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	2.2	2.9	2.1	2.5	1.7	2.1	1.9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건설투자) 상반기에 건축 및 민간 중심으로 건설투자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SOC 부문 예산 축소, 금리 상승 가능성, 가계부채 관리 등의 둔화 요인이 상존하여 2017년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은 5.7%로 전망
 - 그 동안 신규 공급된 물량이 건설투자로 이어지면서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다만, 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방안 추진 등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2017년 SOC 부문 예산 축소 등은 건설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능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	6.6	9.9	11.4	10.7	7.4	4.0	5.7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세계 경기 개선, 신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 개선의 설비 확충 요인과 새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기조 등의 설비 감축 요인이 상충되면서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5.2%에 그칠 전망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르는 대외 수요 증가로 2017년 설비투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저효과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갈 전망
 - 다만 새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정책 우려,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이 설비투자 증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	4.7	△3.7	△0.9	△2.3	8.0	2.5	5.2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 2017년 수출증가율은 9.0%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감소에서 벗어날 전망

- 수출은 세계 경기 개선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단가도 높아지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의 기저 효과가 종료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전망
-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주요국 정치 리스크 등은 하반기 수출 리스크 요인

- (수입) 2017년 수입증가율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1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증가세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
-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르는 소비 심리 개선, 일자리 추경 추진 등은 소비 회복 요인이나, 자본재 수입 증가세는 상반기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 수입증가율은 상반기보다 둔화 예상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2017년 무역수지는 약 745억 달러 내외, 경상수지는 720억 달러 내외로 전망

- 무역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2016년보다 감소한 약 745억 달러 내외가 예상
- 경상수지도 상품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016년보다 감소한 약 720억 달러 내외가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대외거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1,059	517	470	987	380	340	720
무역수지(억 달러)	903	481	412	892	432	313	745
수출증가율(%)	△8.0	△10.2	△1.6	△5.9	14.5	3.8	9.0
수입증가율(%)	△16.9	△13.1	△0.5	△6.9	20.6	9.1	14.6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전망
 -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합의, 미국 및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2016년 대비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달러화 강세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소비 심리 반등 및 고용확대 정책 노력으로 인한 소득 확대에 2017년 하반기 수요측 압력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작년 초부터 나타난 국제 유가 상승세가 국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	0.7	0.9	1.1	1.0	2.0	2.2	2.1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7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건설업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구조조정 지속 등이 고용시장 개선을 제약하면서 2017년 실업률은 3.8%로 전망
 - 최근 건설투자 호조에 따라 건설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그러나 하반기 건설경기 부진, 제조업 구조조정 지속 등이 고용 개선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일자리 추경'이 집행될 계획이나 정책 시행과 효과의 시차가 클 것으로 보여 올해 고용시장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고용 지표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	3.6	4.0	3.4	3.7	4.1	3.5	3.8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7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표(2017.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8	3.2	2.5	2.8	2.6 (2.0)	2.4 (2.6)	2.5 (2.3)
	민간소비 (%)	2.2	2.9	2.1	2.5	1.7 (1.6)	2.1 (2.0)	1.9 (1.8)
	건설투자 (%)	6.6	9.9	11.4	10.7	7.4 (3.1)	4.0 (1.9)	5.7 (2.5)
	설비투자 (%)	4.7	△3.7	△0.9	△2.3	8.0 (2.6)	2.5 (1.4)	5.2 (2.0)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1,059	517	470	987	380 (420)	340 (410)	720 (830)
	무역수지 (억 달러)	903	481	412	892	432 (435)	313 (400)	745 (835)
	수출증가율 (%)	△8.0	△10.2	△1.6	△5.9	14.5 (6.1)	3.8 (3.5)	9.0 (4.8)
	수입증가율 (%)	△16.9	△13.1	△0.5	△6.9	20.6 (10.0)	9.1 (5.0)	14.6 (7.4)
소비자물가 상승률 (%)		0.7	0.9	1.1	1.0	2.0 (1.5)	2.2 (1.4)	2.1 (1.5)
실업률 (%)		3.6	4.0	3.4	3.7	4.1 (4.4)	3.5 (3.8)	3.8 (4.1)

주 : 괄호()안은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12월 당시 2017년 전망치.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시사점

-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안정되는 점,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 중 일부가 개선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세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만큼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상반기에 호조를 보인 수출이 상당부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르는 가격효과였음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보합세가 전망되는 국제 유가 흐름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소득 정체,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노후·주거·일자리 불안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2) 대응방안

-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1)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 (2) 투자와 고용 확대 지속, (3) 효과적인 소비 진작책 시행, (4) 부동산 경기 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 (5) 수출 경기 호조세 활용 및 통상 대응 여력 강화, (6) 서민생활 안정 노력, (7) 글로벌 리스크 확산 대응력 강화 등이 필요함

첫째, 새 정부는 경제 생태계의 구심점 구축, 미래 비전 제시,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한다.

- 경제 성장은 특정한 하나의 경제 주체의 힘으로만 달성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매진하며 상호 이해와 한국

경제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의 강력한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려는 근시안적인 안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한국 경제상(象)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조정 능력 발휘 및 의사소통 채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둘째, 경제 정책의 초점은 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을 통한 투자 및 고용 확대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두어야 한다.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함
-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체감도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규제 완화 수요 파악, 규제에 해당되는 정부의 역할 범위 조정, 부처별 규제 총량제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
- 정부는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임

셋째, 가구의 소득 증대 노력과 동시에 소비 진작책의 정확한 타게팅을 통해 내수불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국가의 경제 성장, 기업의 실적 개선이 가구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통한 민간소비 회복을 유도
 - 일자리의 총량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소득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현실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는 상충 관계를 가지므로 정부는 추진력을 발휘하되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함
- 민간소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신규 일자리 확대는 소비 여력을 갖춘 계층의 확대로 이어지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함
 - 또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야 함
- 소비성향이 높은 1인 가구, 규모 자체가 높은 고소득층의 소비 유도 등으로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소비성향은 높으나 소비여력이 적고 소비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취약계층을 타게팅으로 하는 것은 소비 진작책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소비 진작책의 수단으로써는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됨

넷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및 건설 경기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건설투자, 특히 부동산 경기에 의존적인 민간 부문 건축 경기 호조에 기대어 경기 회복을 도모할 경우의 부작용을 유념
- 또한 가계 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함
- 다만, 현재 경제 성장 상당부분을 건설투자가 이끌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건설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

다섯째, 현재의 수출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 공략 정책과 함께 국제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대외 불확실성을 차단해야 한다.

- 기존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
 - 미국, 중국은 수출 단일시장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며 두 시장을 합치면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두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는 한국 수출 회복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
 - 신흥 시장은 인프라투자 확대 계획,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유망 품목을 위주로 집중 공략
 - 특히 인도,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 등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
- 세계 경제 및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외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통상 역량을 강화
 -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하여 미국 및 중국 정부와의 통상 외교 채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수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

여섯째, 생활물가 안정 및 가계소득 확대를 바탕으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을 확보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미 금리인상에 따르는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압력,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따르는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담합과 사재기 감시, 생필품 수입 규제 완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담합이나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비자잉여가 제약받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정 생필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한편 공공요금의 과도한 가격 인상은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가격 인상폭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보전을 해주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공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아야 함
- 물가안정을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바탕으로 가계 소득을 확대하여 실질 소비여력을 확보해야 함

일곱째,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리스크의 확산에 대비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은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취약 신흥국으로부터 위기 전염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의 전염을 최소화해야 함
-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대외의존도와 외환보유고 확충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에서 지속 운용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금융·통화정책 공조 등을 통해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막아야 함
 - 통화스왑 체결, 역내 금융안전망 등 유동성 공급 장치는 위기 발생 시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있어 효과적임 **HRI**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경제연구실장	(juwon@hri.co.kr, 02-2072-6235)
【연구조정】	홍준표	동향분석팀장	(jphong@hri.co.kr, 02-2072-6214)
【대외여건】	김수형	연구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소비】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투자】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대외거래】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물가】	신유란	연구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
【고용】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